

외국인 노동자 상담은 어디에?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상담소들의 주소를 실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회원단체 주소록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Songnam Migrant Workers' House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87 TEL 0342)757-8093, 756-2143 FAX 0342)758-4628

외국인노동자 마을 Foreign Workers' Community Center 서울시 강북구 미아6동 645-112 TEL 02)983-3783 FAX 02)982-9489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The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127-1 우신빌딩 TEL 02) 795-5504 FAX02) 749-6055

중국노동자센터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8-1 TEL 02) 798-6355 FAX 02) 798-6356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Bucheon Foreign Workers' Hous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84-5 TEL 032)668-0077, 651-8351 FAX 032)668-0077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Korea Church Women United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56 기독교연합회관1110호 TEL 02)708-4181-3 , 708-4270 FAX 02)708-4186

시화일꾼의 집 Shiwa Ilkun's House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187번지 정왕천주교회 內 TEL 0345)497-7151 FAX 0345)499-7294

희년선교회 Jubilee Mission Fellowship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3동 148-40 (정환빌딩 4층) TEL 02) 861-4394 FAX 02) 858-78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12-1호 삼선빌딩 4층 TEL 02)765-2010 안산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81-9 TEL 0345) 758-4628 FAX 0345) 492-8786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경기도 수원시장 안구화 서동 100 TEL 0331)257-8501, 0331)44-3991 외국인노동자대변처 059-0430 김재호전사.

후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대책 협의회(외-노-협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각 상담소들과 외국인 노동자 대표들이 연대한 단체입니다.

외노협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후원자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노-협 홍보부나 각 상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325-06-227109 조흥은행 최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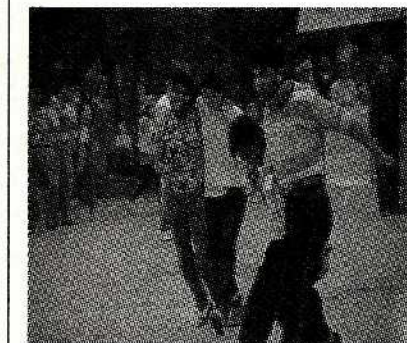
노동과 평등

창간호

LABOR & EQUITY

인권 자료실 분류기호 A3-6 178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소식지 JOINT COMMITTE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발행인: 김해성 편 집: 외노협홍보부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타인인가? 인간의 역사는 지배와 억압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타인을 만들어 왔다. 그 타인들은 항상 역사와 삶의 조건에서 주변을 강요당해왔다.

신분제사회에서 노예들은 타자였고 철부지의 고집처럼 남아있는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타인으로 만들어 왔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한 이러한 구분과 차이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노동은 될수록 값싸게 구입해야 할 상품으로 전락한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가 설 곳은 항상 주변이었다.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사회에서 부여받은 타자의 정체성은 그들에게 주변 중에 주변을 강요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예외와 차별과 권리의 제한이 뒤따라 다녔다.

부당한 것은 없어져야 옳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해진 모든 불평등과 억압은 사라져야 한다.

그들을 타자로 규정한 구분과 차이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다. 노동과 평등의 새로운 지평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ICMK

땀의 대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표지글 외국인 노동자! 그들도 우리처럼

창간호 특집 2 외노협과 외국인 노동자 운동 외노협 회장 김해성 목사 인터뷰

국내 외국인 노동인권 현황과 정책과제 4 외노협 정책부

연장과 경험 6 연자변인, 방과후에서 人의 한국가

기획기사 9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역사

오산씨의 꿈과 출입국 관리소의 변경 11

상담소 및 단체 주소록 12



창간호 특집

『외국인노동자 대책 협의회』 김해성 회장 인터뷰

▶95년 1월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호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고있으리라. 그리고 피와 눈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으로써 그들처럼 궁지에 내몰린 사람들을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있다시피 문제의 해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러한 현실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바꿈으로써만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실의 구조를 타파하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의 회장인 김해성 목사를 인터뷰하게 되었다.◀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노협 이전에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가 국내에 산재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각 단체들의 활동 상의 한계에 의해서 외노협이라는 단체가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단체들의 어떠한 한계들로부터 만들어졌고 언제 외노협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 1월에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생산직 노동인구의 1%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들 중에는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2-4년 씩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도 있고, 불법 체류 노동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이 도입된 합법 체류 형식으로 도입된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도 있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라는 신분적 약점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닌 말 그대로의

연수생이기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에 처해 있습니다.

1995년 1월 9일 부터 벌어진 네팔 연수생 13명의 명동 성당 농성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외국인 노동자 공동 대책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상담 활동은 서울, 성남, 수원, 안산, 부천 등 각 지역에서 개별적이며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상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소에서 체불 임금이나 산업 재해, 의료문제 등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상담 활동을 주로 했었지만 열심히 뛰면 될수록 상담이 쇠도하고 결국 상담 서류가 첩첩이 쌓이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밀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국면이었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상담활동을 넘어서서 각 상담소간의 연대를 통해 정부가 외국인력 수급 정책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길만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유린을 제어하는 유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95년 1월에 있었던 네팔 산업 기술 연수생의 명동 성당 농성 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국내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후로 국내의 노동 단체,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권 단체, 종교 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외국인 노동자 공동 대책위원회'라는 형식을 거쳐서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이하 외노협)를

해결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민첩함과 추진력의 필요에 따라 보다 능동적이며 실제적인 연구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공유하게되어 1995년 7월 9일 <한국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외노협이라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이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노협의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구요, 95년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외노협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외노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아서 세가지 축입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라는 한 축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등을 비롯한 각 나라별 대표들의 3자가 모여 자신들의 처지와 요구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95년도의 활동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95년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산업 기술 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외국인력 수급 정책의 필요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 회견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10월 29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화 한마당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장 축구 대회를 결행했구요. 이날의 문화 한마당에서는 한국의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과 각 나라별 외국인 노동자들의 협회가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각 나라별 전통 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풍자하는 문화 한마당도 열렸습니다.

불법 체류노동자들은 불법 체류리는 신분적 약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닌 말그대로의 연수생이기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월급을 주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끝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부하시고자 하는 바를 얘기해 주시죠.

명동 성당에서의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들이 외쳤던 간절한 호소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월급 주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당시 언론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심층 보도하였고, 또한 정부 당국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수립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문제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성이 끝난 얼마 후에 정부 당국의 연수제도 개선지침이 발표되었고 ‘고용 허가제’를 축으로 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입법이 추진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들끓던 여론이 가라앉자 근본적 제도 개선의 자세는 실종되어 버렸으며, 기존 연수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온존시킨 채 외국인 연수생의 대폭 확대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첫째,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면하라. 둘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를 철폐하라. 셋째,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얘기를 하죠. 관심과 애정만이 이 처참한 현실의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노협 정책부가 본 국내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대안

국내 외국인 노동인력 흐름과 정책과제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후진국 수준 못 벗어나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뿌리를 내린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아무런 대안없이 시행착오만을 일삼아왔다. 최근 정부는 빗발치는 국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 외국인력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것을 표명하였고, 오히려 이를 더 확대하여 96년에는 2만명에서 3만명의 외국인력을 추가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마저도 통상산업부와 법무부, 노동부의 입장이 제각기 달라 합일한 대안없이 각 부처간의 이견으로 우왕좌왕할 뿐이다. 따라서 지난 2년간 민간단체에서 “외국인력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주제로 몇차례 공청회를 통하여 정부의 견해를 밝힐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고 이렇다할 대안없이 방관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지난 3-4년간 외국인력에 관련된 신문스크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없으며 비논리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92년 7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6개월간 비자연장.

93년 1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다시 6개월 비자연장.

93년 4월.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추방 체류연장 불허.

바로 뒤를 이어 93년 6월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연장.

이렇게 5번이나 비자를 연장하여 불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뿌리를 내린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아무런 대안없이 시행착오만을 일삼아왔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불법으로 묶어놓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한 치도 책임질 수 없다는 비인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법체류를 묵인 조장하였고, 또한 수차례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를 금지하여 왔다.

책임 회피하는 불법만 양산

정부는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책임져야 할 모든 노동법상의 문제, 사회간접자본의 부담과 이들을 고용하므로 생기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노동시장의 한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묵인하되, 이를 끊임없이 불법으로 묶어놓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한치도 책임질 수 없다는 비인간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산재와 체불임금, 사망, 폭행, 성폭행, 금품갈취 등을 당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급기야 14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경실련 강당에서 잘린 손을 내보이며 한국의 인권탄압을 국내외에 호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정부는 산재보상 3년 소급적용이라는 임시적인 무마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의 호소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예전 ‘좌경’이라는 카드 하나로 모든 통치를 좌우했던 시대처럼 ‘불법’이라는 딱지로 마음대로 착취하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한 외국인노동자들이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힘을 조직화시키고 급기야 농성까지 진입하게 된것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의 활용가치를 잃고, 이

들에게 3년간 허가한 연장비자를 중지하고, 새로운 외국인력제도로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미 유럽등지에서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시행해온 이른바 ‘레몬즙 짜먹기’란 딱지가 붙은 제도로 이미 국제적 비난이 된바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최근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시행해 오며 외국인력을 착취해왔으며 한국은 이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아무런 실험과정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해오게 되었다.

이러한 실험과정없는 일방적인 모방정책은 인력송출 회사라는 신노예상인들을 배출하였고,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노예들이 도망이나 가지 않을까 감금하고, 폭행하고, 전화, 편지 등을 일체 차단하며 여권까지 압수하고 임금을 인력송출회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회피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산업기술연수제도가 본격화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명동성당 앞에서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비인간적인 착취를 폭로하며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라는 울부짖음을 토해 내게 되었다.

바람직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대안 필요

명동성당의 농성이 처절히 막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200달러에서 330달러로 임금인상, 임금직접지불, 여권 본인소유, 산재보상실시, 의료보험실시, 자유왕래 보장 등의 몇가지 대안책으로 명동성당의 농성은 일단락 되었으나 아직도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마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이 그나마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공염불일 뿐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울부짖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절규는 이 반도 땅을 메아리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제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정책부는 바람직한 외국인력이 도입되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한해가 되고자 한다.

이탈을 35%인 현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례와 함께 지적해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임을 증명하고 홍보하며, 이를 위한 대국민서명작업을 실시하고, 끊임없이 정부와 각 부처에 질의서 항의방문 등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현재 6만명을 웃도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제도로 생성된 희생물이므로 반드시 사면되어야 함을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주들의 의견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당위성과 함께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미 유럽등지에서 저개발 국가를 상대로 시행해온 이른바 ‘레몬즙 짜먹기’란 딱지가 붙은 제도로 이미 국제적 비난이 된 바 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한 무책임한 정책만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불과 몇십년도 안된 자신의 처지도 돌아보지 못하며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을 착취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오명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날이 그리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어 정당한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

이제라도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법의 울타리에서 활기있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상해야만 한다.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한 무책임한 정책만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불과 몇십년도 안된 자신의 처지도 돌아보지 못하며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을 착취하는 국가’라는 국제적 오명과 함께 국제사회에 고립될 날이 그리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후 외국인노동자로 인해 파급될 한국사회의 불안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그때는 가래로도 막지 못할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이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책부는 호미들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새벽이 올 때까지 단결하여 나아갈 것이다.

현지법인 고용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문제점

월급 4만원! 천안 전방 주식회사의 인도인들

▶한달 임금 4만원, 강제노동, 외부 출입금지, 무엇이 연상되는가? 남미나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의 수용소, 아니면 몇 십년 전 과거의 강제노역장.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먼 나라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믿고 싶지 않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현지법인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

현지법인 고용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권 문제 심각

현지 법인 고용 외국인 연수 제도는 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대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투자 또는 합작 투자하여 인력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현지에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하여 국내 기업의 단순직 노동자로 파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 산업 기술 연수 제도의 모체로써 1990년도부터 도입되어 현재 이 제도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모두 9500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 수는 해마다 점차 증가되고 있다.

현지 법인 고용 외국인 노동자

들의 임금은 한 달에 100달러(8만원)에서 심지어는 50달러(4만원)밖에 안된다. 인간의 가치 평가가 그 사람 자체를 대신하는 이 사회에서 그들이 인간적인 가치는 그들의 임금속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거기에 더해서 강제적인 연장 근무등으로 그들은 또 한 번 시달리고 있다.

고용 기업의 부당한 통제

이들 연수생은 대부분 기업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어 회사의 부당함에 항의할 경우 출국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강제 출국되고 있으며 또한 회사 내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외출을 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산업 기술 연수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혜택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들어온 산업 연수생들에게만 적용될 뿐 현지 법인 고용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단지 그들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받는 차별이다. 그들은 노동할 의욕을 잃고 개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으며, 고립속에서, 그리고 차가운 한국인들의 시선속에서, 강제근무로 인한

피로 속에서, 생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이 본국에서 가해자를 지목하라면 한국정부도 한국의 기업도 아닌 정확하게 한국인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천안 전방 주식회사의 사례

천안 전방 주식회사는 본래 인천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인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천안으로 옮겼다. 이 천안 공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것은 아직 1년이 못 된다. 전방은 인도 현지에서 "Tai 전방"이라는 현지 합작 투자회사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Tai전방에 있는 인도 노동자를 한국에서 연수시킨다는 목적으로 1년비자로 70여명 정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들은 천안, 광주, 인천, 등지로 나뉘어져 근무하게 되었다. 다음 내용은 안산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현지 조사 한 것을 옮긴 것이다.

『지난 95년 9월 24일 천안 전방에서 한 인도인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산재를 당하고 보상 문제등을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산재를 당하였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얼마의 보상이 나오는지 앞으로 자신은 한국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 지

천안 전방의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장살없는 이국 땅 감옥에서 일하는 노예로밖에 비쳐지지 않아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 임금은 288,150원 천안 전방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현달 임금은 최저임금의 1/7 수준

에 대하여 물어 왔습니다.

한 달 임금 4만원

우선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0,000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한국 돈을 계산하는데 익숙지 않아 실수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며(이런 일은 상담중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종이에 써 보라고 하였습니다. 역시 그 사람은 40,000원이라고 썼습니다.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달 월급이 40,000원이 정확한가를 재차 물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에게 천안 공장에 직접 내려가 조사를 하고 나서 산재 보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10월 2일 천안 전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천안에서도 자동차로 30분 정도 가야 하는 직산면 남산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회사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산에서 그곳 지리를 전혀

모르는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이 정도 헤맬다고 하면 외국인이 전화로 위치 확인을 하고서 찾아간다는 것은 거의 어렵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최근 한달전에 외부출입 허용

나중에 안 일이지만 회사에서 최근 1달전(한국에 온지 9개월만에)외부 출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타거나 지나가는 차를 세우지 않고는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깥 출입을 허용하였어도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진 골짜기에 위치한 회사를 수소문한 끝에 찾아갔습니다. 회사의 건물은 지은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매우 깔끔했습니다. 공장은 거의 자동화되어 있었고 기숙사도 시설이 그런 대로 좋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숙사는 4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출입하는 입구가 따로 있었고 이들 외국인이 한국인 기숙사를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오로지 그들만 생활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담당자와 인도 사람들을 만나서 천안 전방에 내려온 이유를 설명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천안 전방에서는 얼마전까지 47명의 인도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18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 중에서 이탈자는 3명정도였습니다. 또 지금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기 때문에 연수 현장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11월이면 30명의 인도 사람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월급은 인도 사람들이 말한 대로 4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 현지 투자 합작 회사에서 데려온 인도 연수생들은 인도에서

15,000루피를 받고 일해 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4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들 연수생들은 한국에 와서도 동일 임금인 한달4만원을 기본 월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 월급은 고스란히 본국에서 가족에게 송금되었습니다.

월급과 같은 액수의 용돈

전방은 외국인들에게 용돈의 명목으로 한 달에 4만원을 더 지급하여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회사가 엄청난 은덕을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4만원의 월급이 본국으로 송금되기 때문에 이들이 만질 수 있는 돈은 한달에 4만원입니다. 용돈으로 받는 4만원은 천안 시내에 나와 하루를 보내면 쓰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돈입니다. 용돈 4만원은 그야말로 이들의 출입을 외부와 차단하고 외국인의 노동력을 철저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착취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으로서 낮이 뜨거웠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솟기도 하였습니다.

천안 전방의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장살없는 이국 땅 감옥에서 월급 4만원을 받고 강제 노역을 하는 노예로밖에 비쳐지지 않았습니

손가락이 잘린 산재에 고작 18만원 보상

산재를 당한 외국인의 형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한 일은 없고 산재를 노동부에 신청할 생각도 없으며 삼성 상해 보험에 이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산재를 당한 외국인들은 이 상해 보험의 처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산재를 당한 사람의 상태를 노동부 산재 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12급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받

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8만원도 못되었습니다. 치료비도 못되는 이 액수를 보상비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임금 산정에서는 이들이 받은 용돈을 제외하였습니다. 임금이 라고도 할 수 없는 금액을 한달 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은 288,150원입니다. 전방에서의 이들 외국인은 최저 임금의 1/7수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찌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현지 투자 합작회사에서도 상당한 뒷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한 사실입니다. 현대판 노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대판 노예제도-현지법인 산업기술 연수생

외국 현지 투자 합작회사를 통해 들어온 연수생의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잘 드러나지 못한 부분입니다 -대우 자동차에 600명, 수원의 한일 전자에 50명, 대우전자 부품공장에 100명이 최저 임금의 1/3도 안되는 100달러에 고용되어 있다-전방은 광주 천안 인천 등지에도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이들 회사에도 역시 외국인들이 동일 조건으로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방만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들어온 현지 투자 합작 회사 연수생은 현재 우리 나라에 6-7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실태를 조사해 보면 아마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들어날 줄로 압니다. 이번 기회에 현지 투자 합작 회사를 통해 들어온 연수생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한국유감

많은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매우 가까운 방글라데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엔 같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한국의 문화라든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그전에 몰랐던 한국에 대해 신문을 통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방글라데시와 같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기는 하되, 그러나 실제로는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어디든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등에서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은 수나마 중국 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서도 역시 취업을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박자는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불법 취업 노동자들과 신업 기술 연수생이라는 합법 노동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 노동자들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임국해 비자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나도 그들중 하나입니다. 우리(외국인 노동자)는 어느 곳에서나 또 아무 때나 무시와 조롱을 당해 왔으며 기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갖가지 종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는 종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어로 말할 줄 모르고 우리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더해서는 여행등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관리소에서 추정하는 과도한 벌금은 귀국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하는 한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범법자가 아닌 순수한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 왔지만(적은 월급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식 있는 사회단체와 민주 노총 그리고 노동 상담소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만이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우리의 진지한 성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이 어떻게 좋게 되어 가는지를 지켜볼 것이며 동참할 것입니다.

기획기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역사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새로운 입장에서 경심면 농성까지

·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1988년 서울 올림픽은 한국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해방 이후 경제 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민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유출해 왔던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들에게 올림픽으로 한껏 높아진 한국의 경제 위상은 한국을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부각시켜 준 것이다. 또한 91년 한중 수교는 중국의 조선족들의 모국 방문을 통한 노동력 유입을 유도했다.

이러한 초기 유입 과정을 거쳐 이들이 본격적으로 제조업체에 종사하게 된 시기는 92년경부터이다. 이들의 고국과 임금 격차가 현격하다는 점과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맞물려 주로 3D 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에 종사하게 된다. 92년 6-7월 2개월간에 걸친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의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서 32개 국가 6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최초

로 공식화되었다. 이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을 공언했으나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과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암묵적으로 조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서 95년 7월을 기점으로 법무부 공식 발표만으로도 10만 명을 넘어 서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제조업체에 종사하게 된 시기는 92년경부터이다

95년 7월을 기점으로 법무부 공식 발표만으로도 10만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 관심과 연대- 초기 외국인 노동자 운동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인권 문제와 임금 체불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제일 먼저 관심을 표명한 곳은 종교 단체들이었다. 대한 성공회 이정호 신부 등이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 활동이 최초의 실질적인 지원 활동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양심 있는 시민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초기 필리

▶ 본지에서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기획 연재 기사로 다루고자 한다. 88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배경으로부터 95년 7월의 명동 성당 농성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노동자 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살펴보려 한다

핀 노동자들의 상담과 설문 조사를 수행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구로회전선교회', '구로희망의 집'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인권침해사례 상담과 선교활동, 의료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각 상담소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항의, 임금 체불과 산재 등과 같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의 촉구 등 종교적 자선과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차원이었다. 이 시기에 '구로노동상담소(박무영)'의 활동은 주목할 만한 것인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노동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해당 부처에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수많은 질의서를 통한 공방과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 사업주에 대한 실질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출입국 관리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적인 설문 조사를 시도하여 이후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 기초적인 틀거리와 자료를 제공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출입국 관리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1993년 중국 교포 임호씨가 출국

시 과도한 벌금징수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 사건은 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1월 9일 피난처를 주축으로 해서 회년선교회, 오천근씨, 성남외국인 선교회 등이 목동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항의하는 최초의 시위를 벌인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처음이었던 목동 출입국 관리소앞의 항의시위는 당일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임금체불자와 산재자등, 인도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출입국 관리소의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계당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경실련 농성

93년을 전후로 가장 정력적인 활동을 펼친 상담소는 아마도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일 것이다. 한달 평균 1000여건의 방문과 상담 사례들을 접한 피난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주와의 면담, 노동부에 중재 요청, 경찰과 법원에 호소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했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더 과격한(?)해결 방식을 모색했다.

93년 11월경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잘려지는 등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13명이 보상은커녕 숙식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으로 배운 피난처 실무자들은 한달 동안 준비를 한 후 산재자들과 함께 94년 1월 9일부터 경실련 회의실에서 같은 해 2월 7일 까지 항의 농성을 벌였다.

경실련 농성은 초기에는 각 방송

사와 일간지 등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세계화의 구호가 범람하던 당시의 분위기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언론 보도의 좋은 소재가 되었던 탓이었다. 이러한 언론의 호의적인 반응에 고무된 몇몇 참여 단체들은 농성 해제를 종용했으며 정부는 농성을 중지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농성 당사자들과 피난처 실무자들은 농성 당사자들에게 산재 보상 보험법을 즉시 적용할 것과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농성은 거의 한 달간 계속되었다. 경실련 농성이 외신(로이터)을 통해 국외에 방영되기 시작하자 결국 정부에서는 3년 이전(92년 2월 8일 이후) 산재자까지 산재 보상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타협안이 받아들여져서 한 달간에 걸친 농성은 막을 내렸다.

경실련 농성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제기한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이었다. 이후에 시민 단체들과 언론의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으며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산재 보상 보험법의 적용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 또한 농성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 이면에 끊임없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자본의 논리가 깔려 있다는 점은 간과된 채 노동자라는 명사 앞에 붙어 있는 '외국인'이라는 접두어가 주는 선정성 때문에 언론과 사회의 초점이 되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피해자의 경험이 지배적인 한국의 근대사에서 '우리도 이만큼 잘살게 되었구나'라는 가학

경실련 농성의 안개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자피해하여야
하는 가라는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적 심정의 반증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단순히 인권 침해의 문제로 환원시키거나 그 해결 방식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로 시작되는 보수 언론의 사실 수준으로 국한시켜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운동이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간 단체들에 의해서 추동되었다는 점은 이후 외국인 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라는 숙제를 던져 주고 있다.



벌금 200만원과 인간의 생명

외국인노동자를 죽음으로 몬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 제도

오스만씨의 죽음

1996년 1월 17일 아침에 방글라데시 사람 오스만(OSMAN)씨가 부평성심병원 인근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오스만씨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 51소재 00급속이란 공장내에서 일해오던 중 사촌동생인 줄하쉬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줄하쉬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고 변사자는 어깨에 통증을 호소해 성심의원에서 치료중이었다. 쇄골 골절상으로 진단이 나온 오스만은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야산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만의 자살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경찰수사로는 자살이유를 전혀 알 수 없기에 외노협 조사반은 방글라데시 대사관과 협조하여 오스만의 행적으로 조사하였다.

절망적인 고망가기

조사 결과 오스만은 3개월의 체불임금과 본국에 있는 아들의 사고로 괴로워하며 조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다. 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월급이 체불된 상태이고 출국하기 위해서는 체불된 임금의 배 가까이 넘는 200만원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오스만은 강제출국 당하기 위해 동료이자 사촌동생인 줄하쉬에게 칼을 들고 시비를 거는 일종의 쇼를 벌였다. 결국 오스만은 경찰에 연행되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어깨쇄골뼈가 3도마나는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해있던 중 오스만씨는 인근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를 자살로 발표했으나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제출국까지 불사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한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않는다. 그의 어깨뼈 부상도 경찰은 오스만씨가 경찰서에서도망가다가 3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서 다친 것이라

고 하지만 어깨의 쇄골뼈 골절은 추락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한다.

또한 단순한 자살로 보기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음에도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마무리 하려는 경찰의 태도 또한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는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 제도

오스만씨의 사인이 무엇이건 간에 그의 죽음 이면에는 출입국 관리소의 비인간적인 벌금 징수제도가 존재하는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3D업종의 인력난을 메우면서 저임금으로 땀을 흘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정부가 해준 것은 무엇이었나. 저임금에 손가락이 잘리고 발이 부러져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그들의 땀의 결실을 가로채는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 징수가 그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출입국 관리소의 비인간적인 벌금징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3년도 중국교포 임호씨가 가혹한 벌금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를 비판해 자살 한 사건은 정부의 출입국 관리정책의 실상을 말해준다. 이러한 정책은 벌금을 내지 않고 강제출국 당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여 경찰에 강제연행을 당하는 기이한 현상도 빚어내고 있다. 오스만씨는 죽음에는 이러한 수단조차 통하지 않았던 데에서 따르는 절망이 숨어있다. 저임금과 각종 산재에 방치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 중으로 착취하는 비인간적인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정책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할 것과 밝혀져야 할 것

오스만씨의 죽음과 출입국 관리소의 벌금정책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법무부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비인간적이고 현실성없는 벌금제도를 즉각 철폐하여야 한다.
2.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한 벌금의 액수와 사용내역을 공개 하여 한다.
3. 오스만은 경찰초소에 자진신고를했고, 파출소를 거쳐 부평경찰서 외사계에 갈 때까지는 다치지 않았음이 확실하고 부상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분명하다. 왜 쇄골 골절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4. 또한 부검도 없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기 까지 보호를 소홀히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음을 밝혀야 한다.
5. 부검도 없이 사인을 일방적으로 자살로 단정하고 조기에 산건을 수습하려고만 했던 이유를 밝혀야 한다.
6. 이번 오스만의 사망사건의 전말에 대해 경찰청장은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한다.

